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2 pp. 335-345,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33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송진열
동서대학교 민석 교양 대학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in-Yeul Song
Minseok College, Dongseo University

요 약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회적 핵심역량이다. 본 연구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지역 D대학교 신입생 2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의 처음관계 맺기, 권리 주장,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가운데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대인관계능력과 가족, 친구, 교수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하고 있어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is an empirical study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targeting freshmen. For the objective and questions of this study, 268 freshmen of D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were selected and a survey was carried out. The collected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Second, the factors, forming initial relationships, claiming rights, mental support and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in interpersonal rela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ird, in the area of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and instructor support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is indicates tha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support by family, friends and instru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adapting to the new environment of college,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dopt various programs that foster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for college students to adapt smoothly to college life.

Keywords :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professor support, adaption to college life, college freshmen

*Corresponding Author : Jin-Yeul Song (Dongseo Univ.)
Tel: +82-10-2735-2358 email: sjsimon7@naver.com
Received October 27, 2017 Revised (1st November 21, 2017, 2nd December 6,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 간의 만남, 접촉을 통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그가 속한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특히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궁극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는 인간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동시에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1].

대인관계는 인간 존재에 있어 필연적인 요소로서 발달단계마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를 키워나가고 사회적 욕구가 발달되고 있는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그 어느 발달단계보다 중요하다[2]. 특히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독립을 요구받으며 새롭고 다양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구축해가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자, 친밀한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이 주어지는 시기이다[3]. 즉, 대학생은 청소년기의 가족과 또래라는 제한적인 관계에서 더 폭넓고 다양한 사회관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 보다 성숙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4].

하지만 대학 입시에만 매진해 온 대학 신입생들은 제한적 대인관계로 인해 대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5]. 대학 신입생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 고립, 고독, 공허감 등의 심리・정서적 혼란을 경험하며 대학생활 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7]. 이처럼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대학적응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어떤 대인관계를 맺었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사회적 욕구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대학생 시기에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부모, 친구, 교수 등과 다양한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대학생들은 교수들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배려, 이해, 동기부여, 관심, 등과 같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런 정서적 지지는 이러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8].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정서적인 지지와 동기부여는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9].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통해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인관계능력과 부모, 친구, 교수의 사회적지지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1.2.1 이론적 배경

대인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의 적응적인 능력, 개인이 타인에 대해 경험하는 인지와 정서 및 행동적 측면의 심리적 양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10], [11]. 따라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는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대학생들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보다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12]. Buhrmester et al.[13]은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통해 대인관계 구성요인으로 처음 관계 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 다루기의 다섯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고 이 도구가 국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14], [15].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의 인적, 물적, 주위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원으로 정의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16]. Betz[17]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의 형태, Schulz & Schwarzer[18]는 사회적 지지를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다양한 정보와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지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ouse[19]는 사회적 지지를 크게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 지

지와 평가적 지지 등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김형태[20], 박신영[2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인으로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로 구분하였다. 이 사회적지지 속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도구적, 정보적, 물질적, 정서적 및 평가적 지지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부모, 친구, 교수로부터 제공되는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지지의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규정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활적응을 학생의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태도, 학교 환경에 대한 참여[22], 학생의 자질과 다차원적 특성 및 학습 환경의 필요조건들 간의 교육적 조화를 최대화하기 위해 요구되거나 필요한 학교 문화의 적응 정도[23]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을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적응 측면에서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내현적 행동[24]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의 구성요소는 보편적으로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또는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25], [26].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고자 한다.

1.2.2 연구 가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2.2.1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관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지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27].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 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박은희[28]의 연구결과에서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고, 이서정[29]은 대인관계와 대학 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와 대인관계 하위요인 모두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1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1.2.2.2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서정[30] 연구결과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처음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대인갈등 다루기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박은희[31]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애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2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2.3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관계를 분석한 김종운과 김지현[32]의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학교와 학과, 대학 상담센터에서의 다양한 정책적인 연구와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친구지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지지는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에서는 경기 지역 D대학교 신입생 가운데 본 연구자가 강의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30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Table 1. Frequency Distribution for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N=268)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88	32.8
	Female	180	67.2
Major	Humanities & Social	70	26.1
	Education	52	19.4
	Natural Science	48	17.9
	Engineering	98	36.6
	All	268	100.0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고 배부된 설문지 300부가 가운데 27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무응답치가 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자료 10부를 제외한 268부를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에서 남학생이 32.8%, 여학생이 67.2%로 나타났고, 전공 분야에서는 인문사회과학 계열 26.1%, 사범계열 19.4%, 자연과학 계열 17.9%, 공학 계열 36.6%로 나타나 모집단 가운데 공학계열 신입생이 가장 많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2 측정도구

2.2.1 측정도구 구성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는 설문지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대인관계능력은 Buhrmester, Furman, Ittenberg와 Reis[33]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번안하여 박사학위 논문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이명희[34]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ICQ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유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처음 관계 맺기(5문항), 권리주장(4문항), 정서적지지(3문항), 대인갈등 다루기(3문항)의 4개 하위요인, 15게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α) .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ubow & Ulama[35]가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김형태[36]의 박사논문에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지지(6문항), 친구지지(5문항), 교수지지(4문항)의 3개 하위요인,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α)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33]가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국내 대학생에게 맞도록 수정 보완한 박은희[3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검사도구는 학문적 적응(4문항), 사회적 적응(4문항), 정서적 적응(4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 및 만족도(3문항)의 4개 하위요인,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α)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2.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았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최대우도법(고유치는 1.0 이상)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은 배리맥스회전법(적재치는 .40 이상)을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관계 맺기 요인의 고유치는 5.22(α=.89), 권리주장 요인의 고유치는 1.76(α=.91), 정서적지지 요인의 고유치는 1.49(α=.89), 대인갈등 다루기 요인의 고유치는 1.02(α=.86)로 나타났으며 4개의 요인이 전체 변수를 약 63.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지지 요인의 고유치는 6.40(α=.93), 친구지지 요인의 고유치는 2.48(α=.87), 교수지지 요인의 고유치는 1.98(α=.86)로 나타났으며 3개의 요인이 전체 변수를 약 72.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create relation	claim right	emotional support	handle conflict
suggest together	**.768**	.154	.156	-.082
tell story	**.760**	-.003	.354	.182
knowing new person	**.712**	.139	-.114	.192
direct introduce	**.651**	.338	-.140	.147
suggest new meeting	**.576**	.076	.308	.102
tell friend	.216	**.781**	-.093	.168
tell no to friend	.122	**.735**	.190	-.030
claim right	.045	**.692**	.090	.143
protest rightfully	.252	**.633**	.330	.193
help friend	.096	.203	**.828**	.034
help family	.256	.122	**.631**	.006
empathize with friend	-.028	-.202	**.580**	.374
acknowledge opinion	.196	.265	.152	**.705**
listen carefully	.256	.164	.008	**.704**
review to solve	-.107	.153	.161	**.493**
Eigen value	5.22	1.76	1.49	1.02
Pct of var	34.77	11.74	9.91	6.79
Cum pct	34.77	46.51	56.42	63.20
Cronbach's α	.89	.91	.89	.86

Table 3. Social support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professor support
encourage parent	**.884**	.081	.100
help parent	**.871**	.174	.029
understand parent	**.839**	.217	.054
interest parent	**.835**	.057	.206
listen parent	**.813**	.270	.136
share parent	**.779**	.274	.078
think friend	.006	**.858**	.128
understand friend	.212	**.840**	.111
help friend	.251	**.819**	.114
courage friend	.257	**.803**	.073
interest friend	.182	**.749**	.198
interest professor	.049	.036	**.877**
intimate professor	-.086	.161	**.867**
understand professor	.248	.115	**.718**
listen professor	.299	.272	**.643**
Eigen value	6.40	2.48	1.98
Pct of var	42.68	16.53	13.20
Cum pct	42.68	59.21	72.41
Cronbach's α	.93	.87	.86

셋째,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적 적응 요인의 고유치는 6.14(α=.90), 사회적 적응 요인의 고유치는 1.73(α=.91), 정서적 적응 요인의 고유치는 1.58(α=.90), 대학에 대한 애착 요인의 고유치는 1.228(α=.87)로 나타났으며 4개의 요인이 전체 변수를 약 71.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daptation to college life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Variables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emotional adaptation	attachment to college
satisfy academic	**.850**	.244	.135	.242
study hard	**.827**	.097	.192	.291
study to ability	**.679**	.113	.152	.017
concern study	**.675**	.274	.182	.366
make a friend	.145	**.864**	.153	.034
live well	.223	**.836**	-.043	-.049
join a club	.119	**.735**	.241	.338
feel lonely	.245	**.540**	.234	.153
blue oftenly	.120	-.075	**.833**	.036
sleep deeply	.227	.234	**.830**	.116
hard stress	.061	.319	**.722**	.182
irritate a bit	.233	.055	**.645**	.249
satisfy to life	.176	-.033	.056	**.842**
satisfy to college	.143	.230	.161	**.792**
hard to adapt	.278	.091	.251	**.761**
Eigen value	6.14	1.73	1.58	1.22
Pct of var	40.94	11.51	10.54	8.14
Cum pct	40.94	52.44	62.99	71.13
Cronbach's α	.90	.91	.90	.87

2.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지지 변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인관계능력·사회적지지·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Table 5. Variables correlation and Multicollinearity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create relation	1										
2 claim right	.44**	1									
3 emotional support	.33**	.37**	1								
4 handle conflict	.49**	.51**	.45**	1							
5 family support	.59**	.41**	.34**	.26**	1						
6 friend support	.40**	.43**	.19**	.37**	.43**	1					
7 professor support	.18**	.43**	.37**	.33**	.30**	.35**	1				
8 academic adaptation	.61**	.48**	.59**	.55**	.56**	.35**	.38**	1			
9 social adaptation	.56**	.48**	.23**	.47**	.46**	.32**	.22**	.52**	1		
10 emotional adaptation	.41**	.49**	.23**	.43**	.37**	.43**	.33**	.46**	.41**	1	
11 attachment to college	.58**	.35**	.29**	.28**	.55**	.46**	.24**	.53**	.41**	.41**	1
M	3.34	3.65	3.47	3.68	3.67	3.95	3.18	3.46	3.79	3.54	3.84
SD	.75	.71	.68	.62	.87	.70	.71	.78	.65	.71	.89
공차	.50	.59	.69	.56	.54	.68	.71				
VIF	1.99	1.70	1.44	1.80	1.84	1.47	1.42				

**p<.01

연구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학 신입생이 인식한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18～.61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측정변수들 간에 .9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여 공차의 값이 0.1이하 이거나 VIF 값이 10이상, 상관계수가 .90 이상이면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8]. 본 연구결과에서 공차는 .50～.71, 분산팽창지수(VIF)는 1.42～1.9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2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신입생이 인식한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F=105.751,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을 약 61.7%(결정계수 R^2) 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의 처음관계 맺기(β=.49, p<.001), 권리 주장(β=.25, p<.001), 정서적 지지(β=.13, p<.01), 대인갈등 다루기(β=.12, p<.05) 순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ctors that affect the adaptation to college

dependent	independent	*b*	*β*	*t*
adaptation to college	create relation	.39	.49	10.82***
	claim right	.20	.25	5.38***
	emotional support	.12	.13	3.07**
	handle conflict	.12	.12	2.47*
R^2=.617	$\triangle R^2$=.611	F=105.751***		

*p<.05, **p<.01, ***p<.001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 가운데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정서적 적응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인관계능력은 학문적 적응을 약 57.5% 설명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적 지지(β=.37, p<.001), 처음관계 맺기(β=.37, p<.001), 대인갈등 다루기(β=.14, p<.01), 권리 주장(β=.11, p<.05) 순으로 학문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 적응을 약 40.0% 설명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가운데 처음관계 맺기(β=.38, p<.001), 권리 주장(β=.24, p<.001), 대인갈등 다루기(β=.19, p<.01) 순으로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적 적응을 약 31.2% 설명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가운데 권리 주장(β=.33, p<.001), 처음관계 맺기(β=.19, p<.01), 대인갈등 다루기(β=.19, p<.01) 순으로 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에 대한 애착을 약 35.9% 설명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 가운데 처음관계 맺기(β=.54, p<.001), 정서적 지지(β=.12, p<.05) 순으로 대학에 대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ctors that affect the sub-variables of adaptation to college

dependent	independent	*b*	β	*t*
academic adaptation	create relation	.39	.37	7.77***
	claim right	.12	.11	2.35*
	emotional support	.42	.37	7.96***
	handle conflict	.18	.14	2.68**
R^2=.575	$\triangle R^2$=.569	F=89.055***		
social adaptation	create relation	.33	.38	6.75***
	claim right	.22	.24	4.17***
	emotional support	-.07	-.07	-1.33
	handle conflict	.20	.19	3.03**
R^2=.400	$\triangle R^2$=.391	F=43.792***		
emotional adaptation	create relation	.18	.19	3.06**
	claim right	.33	.33	5.31***
	emotional support	-.04	-.04	-.64
	handle conflict	.22	.19	2.89**
R^2=.312	$\triangle R^2$=.302	F=29.877***		
attachment to college	create relation	.64	.54	9.12***
	claim right	.14	.11	1.92
	emotional support	.15	.12	2.03*
	handle conflict	-.13	-.09	-1.42
R^2=.359	$\triangle R^2$=.349	F=36.793***		

*p<.05, **p<.01, ***p<.001

3.3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신입생이 인식한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F=85.861,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을 49.4% 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의 가족지지(β=.49, p<.001), 친구지지(β=.25, p<.001), 교수지지(β=.15, p<.01)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Social support factors that affect the adaptation to college

dependent	independent	*b*	β	*t*
adaptation to college	family support	.33	.49	9.93***
	friend support	.21	.25	5.01***
	professor support	.12	.15	3.06**
R^2=.494	$\triangle R^2$=.488	F=85.861***		

*p<.05, **p<.01, ***p<.001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Table 9. Social supports factors that affect the sub-variables of adaptation to college

dependent	independent	*b*	β	*t*
academic adaptation	family support	.41	.46	8.39***
	friend support	.08	.08	1.35
	professor support	.23	.21	3.97***
R^2=.363	$\triangle R^2$=.355	F=50.091***		
social adaptation	family support	.29	.39	6.43***
	friend support	.12	.13	2.06*
	professor support	.06	.06	1.09
R^2=.233	$\triangle R^2$=.225	F=26.793***		
emotional adaptation	family support	.16	.20	3.34**
	friend support	.29	.29	4.69***
	professor support	.17	.17	2.91**
R^2=.252	$\triangle R^2$=.243	F=29.590***		
attachment to college	family support	.44	.43	7.89***
	friend support	.35	.27	4.85***
	professor support	.02	.02	.30
R^2=.368	$\triangle R^2$=.361	F=51.310***		

*p<.05, **p<.01, ***p<.001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 응 하위요인 가운데 대학에 대한 애착, 학문적 적응,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적 지지는 학문적 적응을 약 36.3%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가운데 가족지지(β=.46, p<.001), 교수지지(β=.21, p<.001) 순으

로 학문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적응을 약 23.3%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가운데 가족지지(β=.39, p<.001), 친구지지(β=.13, p<.05) 순으로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정서적 적응을 약 25.2%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가운데 친구지지(β=.29, p<.001), 가족지지(β=.20, p<.01), 교수지지 (β=.17, p<.01) 순으로 정서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는 대학에 대한 애착을 약 36.8%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가운데 가족지지 (β=.43, p<.001), 친구지지(β=.27, p<.001) 순으로 대학에 대한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4.1 대인관계능력·사회적지지·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대학 신입생들이 인식한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송정애, 장정순[39]의 연구에서 가족기능 요인과 대인관계 요인은 모두 대학생활 적응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연구 결과 대학생의 가족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희[40]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Bloom, Retbi, Dahan & Jonsson[41]은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이 한 개인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환경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응을 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소외감은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 시키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줄 사회적 지지를 단절시켜 우울증, 사회적 불안, 성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42]. 따라서 대학생 시기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여 성숙한 대인관계의 바탕을 구축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라는 점에서 그 어떤 발달단계보다도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4.2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처음관계 맺기, 권리 주장, 정서직지지, 대인갈등 다루기 등의 대인관계능력은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의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적응 및 대학에 대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오은지, 박순아[43], 심선숙, 방미란[44]의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이 증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은 변화된 대학환경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혼자 놀기'에 익숙한 지금의 대학 신입생들은 '처음관계 맺기' 하는 방법을 잘 몰라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방법으로 독립심과 자립심을 가지도록 가족과 주변 선배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3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김종운, 김지현[45]의 연구결과에서 첫째,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부모애착과 친구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희, 장숙랑, 지현진, 정경주, 서유진, 김진현, 최영순[46]의 연구결과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송정애, 장정순[47]의 연구에서도 가족기능과 대학생활과의 관계를 대인관계가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가족 적응성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하위 변인인 공감, 신뢰감, 진심, 자기노출, 위안이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도 대인관계의 하위 변인은 공감, 신뢰감, 진심, 자기노출, 위안이 매개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지지의 정적 영향은 대학생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의 질이 향상됨을 보여준다는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먼저, 교수들은 효율적인 학습법 개발과 더불어 부모의 면담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학교와 학과, 대학 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연구와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친구지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동료 및 선배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공유하는 분위기와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지지가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효율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자고 한다. 이에 설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음관계 맺기, 권리 주장,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의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인 초기의 대학 신입생 시기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숙한 대인관계의 장을 구축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인관계능력과 가족, 친구, 교수의 사회・심리적 지지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또는 역량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기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고 확립하여 대학이나 직장 등 넓고 다양한 대인관계의 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지도교수 등과 친밀한 사회・심리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5.2 제언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 사회적지지 변인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매개 또는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도출하여 이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나의 교과목으로 편성 및 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G. H. Park,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2009.

[2] E. H.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review”, New York: Norton, 1982.

[3] S. M. Gwon,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Seoul: Hakzisa.

[4] J. H. Kim,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f college on adult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Docto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6.

[5] E. 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il University, 2014.

[6] D. D. Kim, G. W. Song, Y. G. Kim,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016, no. 8, pp. 370-371, 2016.

[7] J. U. Kim, M. J. Yang, "The influences of attachment and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2. pp.283-299, 2014.

[8] J. U. Kim, J. H.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9, pp. 248-25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9.248

[9] H. J. Hwang,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adjustments universit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7.

[10] M.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Docto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5.

[11] F.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 1964.

[12] K. H. Lee, "The analysis of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and self-efficiency on the trends of personal relationship – verification of parametric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s thesis, Hanseo University, 2011.

[13]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no. 6 pp. 991,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14] E. 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il University, 2014.

[15] M.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Docto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5.

[16] J. W. Lee,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career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Docto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2015.

[17] N. E. Betz,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7, pp. 136-144, 1989.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89171008

[18] U. Schulz, R. Schwarzer, "Long-term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coping with cancer after surge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23, no. 5 pp. 716-732, 2004.
DOI: https://doi.org/10.1521/jscp.23.5.716.50746

[19] J. H.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1.

[20] H. T. Kim,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martphone addiction o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mpulsiveness, anxiety variables", Unpublished Docto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2016.

[21] S. Y. Park, "Analysis of a mediation effect that social Support has on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students in college of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 pp.169-193, 201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2.169

[22] S. H. Birch, G. W. Lad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5, no. 1, pp.61-79, 1997.
DOI: https://doi.org/10.1016/S0022-4405(96)00029-5

[23] M. B. Spencer,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f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34, no. 1, pp.43-57, 1999.
DOI: https://doi.org/10.1207/s15326985ep3401_4

[24] E. S. Moon, "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Unpublished Docto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2002.

[25] S. H. Roh,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game strategy types on adjustment to college - focusing game flow", Unpublished Docto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6.

[26] E. 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il University, 2014.

[27] K. P. Hong, H.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7 no. 1, pp. 34-67, 2017.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7.37.1.34

[28] E. 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il University, 2014.

[29] S. J. Lee,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Unpublished Master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2.

[30] S. J. Lee,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2.

[31] J. U. Kim, J. H.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9, pp. 248-25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9.248

[32]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no. 6, pp. 991,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33] M.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Docto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5.

[34] E. F. Dubow, D. G. Ulama,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8, no. 1, pp. 52-64, 1989.
DOI: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801_7

[35] H. T. Kim,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martphone addiction o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mpulsiveness, anxiety variables”, Unpublished Docto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2016.

[36] E. 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il University, 2014.

[37] R. W. Baker, B. Siryk,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38] B. G. Cha, K. W. Cha,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39] J. A. Song, J. S. Jang,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119-144, 2010.

[40] E. 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s thesis, Kyungil University, 2014.

[41] B. S. Bloom, A. Retbi, S. Dahan, E. Jonsson, “Evaluation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care*, vol. 16, no. 1, pp. 13-21, 2000.
DOI: https://doi.org/10.1017/S0266462300016123

[42] H. H. Hinderlie, M. Kenny,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black students at predominantly white universi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42, no. 1, pp. pp. 1-3, 2002.

[43] E.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vol. 17 no. 8, pp. 94-102, 2016.

[44]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vol. 17, no. 12, pp. 634-64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634

[45] J. U. Kim, J. H.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9, pp. 248-259,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09.248

[46] J. H. Kim, S. N. Jang, H. J. Ji, G. J. Jung, Y. J. Seo, J. H. Kim, Y. S. Choi, “The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the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vol. 16, no. 9, pp. 6027-6035,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27

[47] J. A. Song, J. S. Jang,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119-144, 2010.

송 진 열(Jin-Yeul Song) **[정회원]**

- 2010년 2월 : 동국대학교 영화제작대학원 (촬영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동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문화 예술, 대인관계